

# 전남교육청, 자유학년제

## 현장 안착 지원 강화

### 2020년 중학교 전면시행 대비 관리자 연수



전남도교육청이 '2020년 자유학년제' 전면시행에 대비한 현장 지원원 강화를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28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2020년 자유학년제 전면시행에 따른 운영사례 공유 및 전문성 향상과 상호 정보교류 등을 위해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는 도내 중학교 교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장학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원탁토의를 통해 '자유학년제 현장안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을 통한 교실수업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자유학기(년) 운영 시 학교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2019년 자유학년제 운영학교인 강진중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자유학년제 운영에 따른 학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화순중 윤선주 교감은 "자유학기제로 시작된 교실의 변화가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 학교교육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원탁토의를 통해 다양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위경중 교육과정과장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2020년 자유학년제 전면시행에 따른 현장지원원 위해 교원·학부모연수,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예정이다.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닥터헬기 소생캠페인 동참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 지명 '눈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8일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소생 캠페인'에 참여했다. 2019 청소년방송콘서트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광주여자고등학교 이서린(3) 학생단장과 김가영(3) 단원 등 방송반 학생들이 영상 기획부터 편집까지 담당했다.

학생들과 장 교육감은 16일부터 광주교육연구정보원과 광주여고 운동장 등에서 빨간 풍선 터뜨리기 이벤트와 촬영을 함께

한 후 28일 SNS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다. 풍선 터뜨리는 닥터헬기 이착륙 소리 크기인 115데시벨이 풍선 터지는 소리 크기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시민의식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으며 사회적으로 호응을 얻으며 여러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장 교육감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님의 추천으로 '닥터헬기 소생캠페인'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닥터헬기의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이며 닥터헬기 소리가 들릴 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소음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서린 단장은 "좋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단원들과 의논해서 안무도 직접 만들었다"며 "헬리콥터를 띄우는 일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헬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내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헬리콥터를 띄게 된다. 조금씩 서로 이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소생 캠페인 릴레이 다음 주자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정영신 교육장, 광주청의 융합교육원 최숙 원장을 지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등은 지명 소식을 듣고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인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 '2019 광주교직원예술제' 개최

오는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학생교육문화회관서

광주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2019 광주교직원예술제'를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동아리가 자율연수를 통해 길고 닦은 예술적 기량을 발표하는 장으로 교직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창의·감성·융복합적 이해가 학생 교육에 고스란히 스며들게 함으로써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이다.

예술제 전시회에는 '함께'를 주제로 40여 명의 교직원이 출품한 문인화, 민화, 탭화, 한국화, 서양화, 압화, 사진, 도예 등 45점이 창작 열정의 빛깔과 마음을 담아 전시된다.

예술제 공연에는 오케스트라, 관악합주, 국악관현악, 오고무, 사물놀이, 밴드, 색소폰·오카리나·우쿨렐레·통기타 연주, 라인·모던댄스 등의 11개 프로그램에 150여 명의 출연진이 흥겹고 올림과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 참가하는 전통문화예술교육동호회 '한울림'의 위숙량 교

사(오지초)는 "동호회 회원들과 이루어져 국악의 신명나는 장단을 연주하는 시간이 흥겨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퇴근 후 시간을 할애하여 연습한 결실을 멋진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보람있고 뿌듯하다"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시교육청 박익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은 "교직원·학생 문화예술동아리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통해 교직원 및 학생의 예술적 소양과 감성을 키우는 교육자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하는 시제동행예술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무안교육지원청, 아빠와 함께하는 어깨동무스쿨 운영

무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26일 1박 2일모아 아빠와 자녀 22가족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빠와 함께하는 어깨동무스쿨을 운영했다.

초등학생 자녀와 아빠 22가족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 속 바쁜 아빠와 자녀의 친밀감 형성 및 관계개선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아빠와 자녀의 소중한 정서적 지주를 위한 소통 레크리에이션 어깨동무올림프, 아빠 사랑해요

아빠-자녀 감동포옹, 가족의 향기를 느껴요 향수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가족간의 소중한 추억 만들기 시간을 제공하였다.

남양초 학생은 "아빠가 웃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라고 말해 참가 가족들이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고, 캠프에 참여한 청계북초 정생할 영위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아빠와 자녀의 소중한 정서적 지주를 위한 소통 레크리에이션 어깨동무올림프, 아빠 사랑해요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아빠와 함께 즐겁게 웃고, 소중함을 느끼며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며, 바쁜 아빠를 이해하고 대화를 줄어드는 자녀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더 많은 가정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 담양교육지원청, 초등 우수학생 국외체험학습 운영



담양교육지원청은 24일부터 28일 3박 5일간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올해로 9년째 추진되고 있는 초등 국외체험학습은 담양교육지원청 특색교육으로 담양군의 지원을 받아 각 학교별 우수학생을 선발해 미래핵심역량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보존 자원이 없어 국제무역과 해외 투자로 개방경제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부국이며 다민족국가로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세계 문화의식 및 개방된 이해의 폭을 넓혀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체험의 시간이 되었다.

첫날, 도심 속의 아름다운 영국식 정원인 '보타니 가든'과 새들의 천국인 '주롱 새 공원', 다민족

국가로서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차이네티온과 스타린 모스크' 등을 체험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였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시설이 갖춰진 '센토사섬'과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신나고 즐거운 추억을 가득 쌓았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대학이며 세계 최상의 대학 중 하나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를 방문하여 학교 설명과 안내를 들으며 견문을 넓히고 현지 유학생에게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등 개인적인 여행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 이루어진다.

담양=박종영 기자

